

믿음은 시험을 통해 견고해 집니다

창 22:1-14

학생들의 실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면 시험을 쳐 보면 압니다. 어떤 학생은 보기에는 공부를 잘 할 것 같은데 시험을 쳐 보면 전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의 실력은 시험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한 나라,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의 믿음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본문 1 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일 후에’ 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일 후란 좁게 말하면 21 장의 사건이지만, 넓게 본다면 창 12 장부터 21 장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이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초기에 그의 믿음을 시험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디다. ‘그 일 후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와 시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지독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분의 믿음은 지독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오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로버트 쉘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갔더니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저를 절벽 아래로 밀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가 오고 시험이 닥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가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큰 은사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시험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까?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본문 2 절을 보면, 그냥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키듯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던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것도 100 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시험은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통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 적인 가치들, 즉, 돈이나 성공, 큰 집, 권력, 세상의 재미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줄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줄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기하라’ ‘버리라’라고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처음 단계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면 오히려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어떤 은사를 받느냐?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환상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비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들락날락해도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너는 너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그가 한 민족의 아버지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그 첫째가 바로 아브라함의 묵묵한 순종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할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고민하느라고 밤새우고 그것도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아예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또 4 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까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거리는 사흘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집에서도 번제로 드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사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까지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이 사흘 길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은 생각이 바뀌어서 뒤돌아 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 감정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시간이요, 얼마든지 뒤돌아 설 수 기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험을 거뜰하게 통과하느냐 하면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이르러 사환들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5 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척만 하고 그저 돌아오겠다는 말입니까?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 11:17 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가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 11:19 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다시 산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란 내 생각이나 환경,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 인줄 알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이한나 목사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은 나무를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할 어린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곤욕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8 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왕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아내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절망적인 상황 뒤에 제 3의 가능성으로 우뚝 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다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수풀에 뿔이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수양이 있었습니다. 누가 준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당하는 도중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사흘 길을 걸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몇 주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게 된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순종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